



보도자료

2020. 5. 29.(금) 배포



◆ 수도권 지역 대상,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

- 고교 학생 2/30이내 등교, 유·초·중·특 학생 1/30이내 등교 원칙
- 긴급상황 발생 시 시도교육청·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선제적 조치 실시
- 학원, PC방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과 합동 점검 실시

□ 교육부(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는 최근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5월 29일(금),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였다.

- 앞서, 정부는 5월 28일(목)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‘수도권 지역 대상, 강화된 방역 조치’를 발표하면서, 6월 14일까지 학원, PC방, 노래연습장,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.
- 그간, 교육부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, 관계부처,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로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신속히 대응해왔다.

□ 교육부는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, 수도권 소재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 대상,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, 세부적인 조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.

구 분	조치 세부 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밀집도 최소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기존) 밀집도 2/3이하 권장,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/3 이하 강력 권고 → (강화) 수도권 고 2/3, 유·초·중·특수학교 1/3 이하 등교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고3은 원칙적으로 등교, 고1·고2 교차 등교 등 ※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■ 기존 등교개시일 원칙대로 실시, 학년별·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, 등교 학년·학급은 시도·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·운영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감염 선제 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선제 조치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학교 : 시도교육청,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→ 등교수업일 조정(원격 전환) ▶ 지역(시·군·구) : 교육부, 시도교육청-학교, 방역당국과 협의 → 등교수업일 조정(원격 전환) </div> ■ 사례) 경기 부천, 인천 계양·부평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원, PC방 및 고위험시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원,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,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시행 ■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원 이용자제 당부, 합동 방역 점검 실시

1. 수도권 지역 대상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

- 교육부는 기존에 마련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,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.
-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/3, 유·초·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1/3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한다. 이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수업, 급식, 이동·쉬는 시간의 학생 분산을 통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.

기존 밀집도 최소화 기준	→	수도권 지역,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기준
유·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 전체학생 2/3 이하 등교 권장 (지역 감염 위험 지역은 강력 권고)	→	고교는 전체학생의 2/3 이하 등교 원칙, 유·초·중·특수는 전체학생의 1/3 원칙 (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)

- 기존의 등교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,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 및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·운영할 수 있으며, 기간은 정부의 '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'와 연계하되, 향후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- 이 경우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, 추가적인 돌봄 수요에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(유치원)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

2. 지역 감염에 대한 선제적 조치

-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 등교 수업 이후,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면서, 학교 또는 지역 감염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, 학교 및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,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.
- 특히, 부천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확진자가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며,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, 학생 감염뿐만 아니라, 지역 감염의 경우에도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,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.

<부천 물류센터 관련 등교수업 조정 학교 현황(5.28.18시기준)>

광역 시도	자치 구역	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*						
		특수	유	초	중	고	계	비고
서울	구로					1	1	
인천	동구			1			1	
	부평	4	67	42	21	19	153	
	계양	1	36	26	15	11	89	
경기	구리		1	2	1	1	5	
	김포			1	1		2	
	부천	2	125	64	32	28	251	
계		7	229	136	70	60	502	

- 앞으로도, 교육부는 지역감염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학생·교직원 등과 관련성이 있거나,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.
- 또한, 물류센터 인근의 서울, 경기, 인천,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지역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,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.

3. 학원 등 방역 조치 강화

□ 정부는 지난 28일 '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'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학원과 PC방 및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다.

○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상기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학원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, 금번 행정명령이 이용자에게 대해서도 방역수칙*이 새롭게 추가 되었음을 알리고, 학생·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할 계획이다.

* 이용자 방역수칙 : ① 출입명부 작성 ② 증상 확인 협조 ③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, ④ 마스크 착용 ⑤ 수강생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
※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(300만 원 이하)을 부과

○ 아울러,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,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, 방역수칙*을 어긴 학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서는 시정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**,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.

* 【붙임2】 학원·교습소 방역수칙(중수본 발표, '20.5.28)

□ 학원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.

※ 【붙임3】 이태원發 감염확산 이후 총 7곳의 학원에서 강사·직원의 감염 발생
→ 이로 인해 수강 학생 420여명 검사 실시, 이중 20명 추가감염 발생('20.5.28 기준)

※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4월의 경우 확진자 발생 학원 수는 3개(확진 학원 강사·직원 없음)이나, 5월에는 확진자 발생 학원 수는 7개(확진 학원 강사·직원 7명)

- 특히, 학원 등은 여러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교수업 상황에서는 단 한명의 감염자가 발생해도 타 학교에까지 빠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 - 교육부 뿐만 아니라,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 까지 하교 후 학원 등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학생에게 당부하고, 학부모에게도 학생생활지도를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-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,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"이번 조치는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,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"라고 밝히면서,
- "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,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

구 분	조치 세부 내용
<p>밀집도 최소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기존) 밀집도 2/3이하 권장,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/3 이하 강력 권고 → (강화) 수도권 고 2/3, 유·초·중·특수학교 1/3 이하 등교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고3은 원칙적으로 등교, 고1·고2 교차 등교 등 ※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■ 기존 등교개시일 원칙대로 실시, 학년별·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, 등교 학년·학급은 시도·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·운영
<p>지역감염 선제 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선제 조치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학교 : 시도교육청,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→ 등교수업일 조정(원격 전환) ▶ 지역(시·군·구) : 교육부, 시도교육청-학교, 방역당국과 협의 → 등교수업일 조정(원격 전환) </div> ■ 사례) 경기 부천, 인천 계양·부평
<p>학원, PC방 및 고위험시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원,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,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시행 ■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원 이용자제 당부, 합동 방역 점검 실시

구분	사업주·종사자	이용자 (신설)
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 (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,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수업 전/후 실내소독(대장 작성) ■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■ 공용차량 운행 시, 운전자 마스크 착용, 차량 운행 전후 소독(대장 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명부 작성 (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수강생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
○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,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/집합금지 등의 조치*가 취해질 수 있음

*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(300만 원 이하)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

□ **학원 등 확진자 발생 개요 (5월)**

: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 이후 학원 관련 감염은 총 7건

① **【인천 미추홀구 S학원 강사 확진】<접촉자 검사 완료>**

- (발생사유) 인천 미추홀구, 학원강사 확진판정(5.9, 이태원 클럽 방문)
※ (학원규모) 학원장 1명, 강사 7명, 직원 2명, 수강생 118명
- (확진현황) 인천소재 학생 총 17명 확진(초등학생 2명, 중학생 2명, 고등학생 13명)
- (조치사항) 학원소독 및 폐쇄, 휴원조치(5.13~)

② **【경북 구미시 N학원 강사 확진】<접촉자 검사 완료>**

- (발생사유) 경북 구미시, 학원강사 확진판정(5.24, 교회목사로부터 감염)
※ (학원규모) 학원장 1명, 강사 4명, 수강생 100명
- (확진현황) 접촉자 전원 음성(접촉자 120명, 이중 학생 89명)
- (조치사항) 학원소독 및 폐쇄, 휴원조치(5.24~6.7.)

③ **【서울 강서구 Y학원 강사 확진】<접촉자 검사 완료>**

- (발생사유) 서울 강서구, 학원강사 확진판정(5.24, 감염경로 파악 중)
※ (학원규모) 학원장 1명, 강사 3명, 수강생 108명
- (확진현황) 유치원생 1명 양성(접촉자 93명, 음성 92명, 양성 1명)
- (조치사항) 학원소독 및 폐쇄, 휴원조치(5.24~6.7.)

④ 【대구 수성구 H학원 강사 확진】<접촉자 검사 완료>

- (발생사유) 대구 수성구, 학원강사 확진(5.27, 감염사유 파악 중)
 - ※ (학원규모) 학원장 1명, 강사 4명, 수강생 91명
 - ※ 입시검정, 보습 및 국제화 분야 학원 교습소 강사 전수검사로 발견
- (확진현황) 접촉자 전원 음성(접촉자 120명, 이중 학생 91명)
- (조치사항) 학원소독 및 폐쇄, 학원장 등 자가격리

⑤ 【경기 고양시 H학원 강사 확진】<접촉자 검사 진행 중>

- (발생사유) 경기 고양시, 학원강사 확진판정(5.27, 감염사유 파악 중)
 - ※ (학원규모) 학원장 1명, 강사 6명, 수강생 29명
- (접촉자) 학생 총 29명(초등학생 13명, 중학생 15명, 고등학생 1명)
 - 29명 전원 음성판정
- (조치사항) 학원소독 및 폐쇄, 학원장 등 자가격리

⑥ 【경기 부천시 T독서실 직원 확진】<접촉자 검사 진행 중>

- (발생사유) 경기 부천시, 독서실 직원 확진판정(5.27,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)
 - ※ (학원규모) 학원장 1명, 직원 1명, 수강생 40명
- (접촉자) 학생 총 8명(고등학교 1·2학년 5명, 고등학교 3학년 3명)
 - 4명 음성판정(고3 3명 포함), 4명 검사결과 대기 중
- (조치사항) 학원소독 및 폐쇄, 학원장 등 자격격리
 - ※ 부천지역 : 사회적거리두기 재실시,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1주일 개학연기 조치

⑦ 【서울 여의도 Y학원 강사 확진】<접촉자 검사 진행 중>

- (발생사유) 서울 영등포구, 학원강사 확진판정(5.28, 감염경로 파악 중)
 - ※ (학원규모) 학원장 1명, 강사 7명, 수강생 32명
 - ※ 해당 학원건물은 6층 소재(전체 8층 건물이며 40여개 학원 소재)
- (접촉자) 학생 8명(중학생 8명)
 - 2명 양성판정, 6명 검사결과 대기 중
- (조치사항) 학원소독 및 폐쇄, 학원장 등 자가격리

<월별 학원·교습소 확진자 발생 현황>

월	확진자 발생 학원·교습소 수	확진자 수			
		원장	강사·직원	수강생	합계
2월	14	3	12	1	16
3월	15	5	3	16	24
4월	3	-	-	3	3
5월	7	-	7	21	28
합계	39	8	22	41	71